

구홍일 중앙회장, 각급회 방문再開

1월 28일 대전·충남, 2월 2일 인천·해경경우회



구홍일 중앙회장과 대전충남경우회 임원들이 회담을 나누고 있다.

구홍일 중앙회장이 전국 각 급회 순방의 일환으로 대전 충남 경우회와 인천경우회, 그리고 해경경우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시도회 및 지역회 운영에 애쓰는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서도 방문해 대민 치안 봉사에 수고하는 현직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우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들른 구 회장은 장석조 회장으로 부터 업무현황을 설명듣는 한편 시도회 운영에 수고하는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한후 충남 경찰청에 들러 조선희 청장과 합담한후 『경우회 활성화와 전현직 유대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한 후 상황실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후에는 대전 둔산경우회와 경찰서를 방문해 이병근 회장과 지역회 임원,

한상의 서장과 각 과장 등과 함께 합동 간담회를 갖고 경찰조직과 경우회 발전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한편 지난 2월 2일에는 인천경우회와 인천 경찰청, 해경경우회와 해양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하고 박광현 인천 경찰청장 및 경찰간부들과 환담하면서 경우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후 상황실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했고, 인천 경우회에 들러 김민호 회장으로 부터 업무현황을 설명듣고 지역회 발전을 위한 대화를 가진 후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한 오후에는 인천 중부 경우회(회장 남궁양)와 인천중부경찰서(서장 박성호)를 방문했다.

이어 구 회장은 오후 4시경 해양경찰청에 들러 이승재청장으로 부터 관내 현황을, 조규학 해경경우회회장으로 부터는 경우회 현황을 설명듣고 경우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천해양경찰서에 들러 경우회 신무승 회장과 인천 해양경찰서 이원일 서장과 경우회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는 것으로 일정을 종료했다.

특별기고



송 자 (한국씨이비대학교 총장)

경우회가 하여야 할 일이 많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치에 기여하려면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경찰지도자를 계속 양성하는데 한 몫을 하여야 한다. 역사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나 민족이나, 기업이나 단체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 지도자를 기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경우회도 평화통일과 자유수치에 투철한 후배 경찰지도자들을 기르는데 무엇보다도 한 몫을 감당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역사를 배우면서 시대가 영웅을 낳은 것이나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영웅도 만들고 시대도 만들어 간다. 시민이 영웅 즉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또 밀어주면 그 사회나 나라는 안

지도자를 기르는 警友會

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그 시대에 알맞은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민주사회의 시민은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며 참여하여야 한다. 시민의 참여 없이 사회가 바르게 발전할 수 없다. 시민이 길러내지 않은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시민은 오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여 길러야 한다. 어디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요즘은 지도자 이야기만 나오면 세대교체론도 나오고 오늘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한다. 그러면 새로 오고 있는 21세기에 적합한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지도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쉽게 대답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민이 지도자로부터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는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었고, 경제도 성장시켜 부도 축적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의 틀 속에 얽매어 규제도 많고 추후적인 것이 너무 많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시민을 섬긴다는 논리보다는 다스린다는 논리로 시작되고 집행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시민을 봉사한다는 생각에서 일을 하여야지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에서 일을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링컨대통령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이루려고 하였으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로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다스리기 편한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면 그도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이름 없는 지도자로 사라졌을 것이다. 정치적인 지도자만 섬기는 논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찰도 교육자도 경영자도 이 땅의 지도자는 모두 섬기는 논리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시민의 수준이 향상되어 항상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지도자들도 열심을 가지게 된다. 또 지도자를 아껴주고 보호해 주려는 노력을 하여야지 항상 흠이나 잡으려고 하면 지도자의 사기가 저하되어 일을 할 수 없다. 오늘의 민주사회는 일방통행이 있을 수 없다. 분방이 양방통행이다. 지도자와 시민이 서로 도우며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지도자와 시민이 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지도자를 기르는데 인색한 사회라는 말을 듣는다. 지도자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좋지 않은 소문으로 깔아 내리려고 한다. 우리는 지도자를 기르려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한번 지도자로 선택을 하면 일정기간 기다리며 도와주어야 한다. 민주적으로 선택을 하였으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마덕이 없이 우리는 지도자를 기를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시행착오를 통하여 지도자들도 배우며 자라는 것이다. 자라는데 기간도 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일은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 시민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자를 길러야 한다.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가 기르지 않으면 누가 길러 줄 것인가?

우리가 기르지 않은 지도자는 우리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 자기가 잘해서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시민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스림의 대상으로 볼 것이다. 지도자는 계속 우리들의 정성에 의하여 길러져야 한다. 지도자를 기르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없어 어느 시점에 가서 사회가 혼란해진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세대를 따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 시대를 섬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민들에 의하여 길러지고 또 자라야 한다. 이와 같이, 지도자는 선택되고 또 길러지는 것이다. 경우회는 특히 우리의 경찰지도자를 기르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구경꾼이 되지 않고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자를 경우회도 길러야 한다.

警友會, 전산용품 전문몰 오픈

(주)라라 컴테크와 사업 협정 체결



조정래 경우회측 대표와 장수락 (주)라라 컴테크 대표가 사업협정 체결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우회가 전산소모품 인터넷 판매사업 매하기로 했다. 이에 진출했다. 경우회는 지난 2월 1일 (주) 이병근 업무제휴는 제안사인 (주)라라 컴

라라 컴테크와 제휴, 전산 소모품을 중심으로 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경우회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회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공급관

리에서 공급망 관리, 전자구매 조달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원스톱 배송 처리 등을 담당하고, 경우회는 자체 설립한 (주)경안협업에서 경우회 홈페이지 경로를 통해 전국 경우회 및 관련단체에서 전산소모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전산소모품을 구매하고자 할때는 경우회 홈페이지에 설치된 배너 광고를 클릭하고, 링크된 expolice.inkcis.co.kr에서 물품주문을 하면 되는데, 5만원 이상 구매시는 대금 후불제에 택배비 무료혜택이 있고, 5만원 이하 구매시는 대금을 선불하고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

경우회는 이번 전산소모품 사업과 관련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지역 경우회, 개인 회원 등에게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신간 소개 체질따라 먹으면 飲食도 藥이 된다



최재삼 회원 (前 해양경찰대장)

최 재삼 회원이 최근 가족의 만성 두통을 식이요법으로 해소하게 된 체험을 계기로, 약 3년간에 걸쳐 관련 서적과 자료를 수집해 엮은 『체질따라 먹으면 음식도 약이 된다.』를 출간했다. 최 회원은 이 책에서 체질 분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분류의 원리 및 음양오행론, 천지의 기와 인체와의 관계를 논하며 그에 따른 식이요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病治의 처방, 병명별 식이요법에 따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두통 등 질병에 따른 식이요법도 견하면서 손과 발, 얼굴부위로 병을 진단하는 법은 물론 주관절, 수관절, 견관절 등 관절부위의 이상에 따라 간단하게 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을 뿐

만이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과 각종 신체 부위를 튼튼하게 하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최 회원은 『의학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음양과 오행의 상생상극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건강과 질병에 좋은 식품과 먹는 방법을 소개한다는 것이 무모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음식처방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만병종 단한 명에게라도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李相斗의 교통상식-(34)

이럴 때 이렇게



지난 주말 고향을 다녀오던 이모 씨(33세)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 그만 앞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씨는 이천을 통과하던 중 급한 마음에 깜박이를 켜는 것을 잊은 채 진로를 변경했는데 옆 차로의 지프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한 것. 그렇게 큰 위험을 준 것도 아닌데 뭘 그러나 하며 무심코 지나쳐려고 했으나 뒤차는 그렇지 않았다.

내리막길이 되자 지프는 급 가속을 해서 이씨의 차를 추월했고 앞서가던 지프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이씨의 진행을 막아섰다. 이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이씨의 차는 꺾히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지프를 들이받았다. 당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던 터라 이씨는 물론 옆에 탔던 사람도 부

고의적 급정지에 의한 추돌사고는 고의 정지한 앞차 책임

상을 당했고 차는 견인차를 불러야 할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이씨와 지프 운전자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은 이번 사고는 앞차가 급정지를 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앞서 이씨가 깜박이도 켜지 않고 진로를 바꾸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프 운전자가 고의적

으로 급정지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앞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경찰관은 또 앞차가 급정지를 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뒤차의 의무인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고의적인 앞차의 급정지인 만큼 후속차량의 진로를 일부러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2005학년도 산업체위탁 (신·편입)생 모집요강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취득
- 현직 경찰/검찰직원/법원직원 및 군무원/공무원 우대
- 법무행정실무사 자격증 취득자 우대
- 직장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한 무시험 대학입학 ≡ 서류전형
- 1주일 2일 야간 출석수업 ≡ 직장생활에 지장 없음(오후7시~10시)
- 교통이 편리한 가까운 곳에 강의장 위치 ≡ 구로역 도보 7분
- 등록금 150만원(입학금55만원 면제) ≡ 타대학 등록금액대비 30% 저렴
-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장학금 및 복지혜택

『메마른 사색생활』 잠시 탈피하여 학창시절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회를 잡으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UP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이란? 여러 사정으로 대학진학의 기회를 놓친 산업체(사업자 포함)에 근무하는 자에게 고급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년제 대학교 정규과정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신도림에서 개강하는 법경찰학부는 관련업체나 국가기관 등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학원서 접수방법 ① (152-887)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99번지 5층 (접수처 : 호원대학교 서울 산업협력센터 국제정보교육원)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02)2637-8700 ▶Fax 02)2637-3030

호원대학교

제44기 법무행정실무사 교육생 모집 (제8회 시험 2005년 5월)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기존의 합격자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iec.co.kr)

1. 본 교육과정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교육을 80%이상 성실히 수강하신 분은 교육비의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바랍니다. 02-2637-8700
2. 본교육과정은 실무+실습을 대폭 강화한 16주(4개월교육)의 장기 교육코스입니다.
3. 과목별 단기교육수강을 원하셔도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전과목 수강자에게는 법무행정실무사 대비 최종정리반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법무사무원교육 40만원(6주 42시간) 교육비 환급 ≒114,685원		변호사무원교육 40만원(6주 42시간) 교육비 환급 ≒114,685원	
부동산 등기 실무	상업등기 실무	가압류 가처분 실무	소송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신청절차 ■ 매매/상속/증여/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취득신청서 ■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분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가등기/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 말소등기 ■ 등기명인의 표시변경등기/표시경정등기 ■ 부동산관련세금(임대소득세/등록세/취득세/증여세/상속세) ■ 건물시가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등기와 신청절차 ■ 회사설립 등기신청 ■ 임원 변경 등기 ■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 상호 변경 등기 ■ 목적 변경 등기 ■ 주식의 병합·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 분점 이전 등기 ■ 신주발행 변경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 해산과 청산의 등기 ■ 청산종결의 등기 ■ 경정 등기 ■ 상업등기절차의 주요 행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 ■ 회사설립 신청 절차 ■ 가압류의 대상/관할법원/보전처분의 당사자/보전처분의 요건/보전처분신청의 심리 방법/재판/신청서 기재 방법/가압류신청서 작성법/ ■ 보전처분의 집행 ■ 보전집행의 취소 ■ 보전집행으로의 전이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 민사집행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 실무 ■ 소송소절의 기본방향/소장의 접수 ■ 답변서 서면에 의한 정정/정리/정리 기일 ■ 증거의 수집·조사/집중 증거 조사 기일 ■ 항소/상고/항고/재심/특수 ■ 형사 소송 실무 ■ 형사소송에 대한 기초/수사/법원과 영장 집행 심사/체포·구속처분 심사/배상 명령 사건/약식판결/즉결심판 ■ 가사소송 실무 ■ 가사 사건/사건의 접수 ■ 행정소송 실무 ■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실무 ■ 수선자부담 : 080-637-8700

지역	교육모집	교육장소	교육일	교육시간	전과목 수강시
서울	3월 12일~7월 2일 (4개월 16주코스)	국제정보교육원 (구로역2번출구)	매주 토요일	15:00~20:00	법무행정실무사 최종정리반 무료

교육기간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전화 02-2637-8700 팩스 02-2637-3030 ●교육접수(팩스로 교육참가 신청서/약도 교부 및 팩스로 참가접수) 구로구 신도림동 399번지 ●시험주관처 : 법무행정실무협회 www.lawvip.co.kr ●교육주관처 : 국제정보교육원 www.giec.co.kr 본교육과정은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구체적인 것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계약서 작성→회사명의로 교육비 입금(법원카드 외에 개인카드사용불가)→교육80%이상 수강→수료증발급→노동부환급신청→회사계좌로 입금) 기타교육 : 부동산건매 교육 (매주 금요일 저녁 7시~10시 2개월 200,000원) © 국제정보교육원, 전화 02-2637-8700